

최근 도박과 관련된 유명연예인이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거기에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거액의 인터넷 도박을 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2% 정도가 도박 중독인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4% 정도가 도박 중독에 빠져있다는 보고가 있다. 도박 중독은 심각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상태가 되면 평소와 그렇지 않던 사람도 도박과 관련해 쉽게 거지말 하고 짜증이 늘고 심지어는 난폭한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도박 빛을 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최근의 여러 가지 연구들은 중독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닌 뇌질환임을 밝혀냈다. 인간의 쾌락이나 충동을 담당하는 회로가 선천적으로 부실하거나 어릴 때부터 잘못 형성된 경우 쉽게 중독에 빠진다는 설명이다. 쾌락을 담당하는 뇌는 특정한 자극이 들어오면 다량의 쾌락물질을 분비하고 다시 더 강력한 자극을 찾게 된다. 이 회로에 작용하는 도파민을 비롯한 여러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도박중독은 더 이상 마음이나 의지의 병이 아닌 뇌의 병인 셈이다. 물론 성격적인 요인도 있다. 늘 새로운 자극, 좀 더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는 탐닉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도박 외에도 술이나 약물 등 여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현실도피적인 사람들이나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범죄형 도박꾼, 정신질환으로 인해 도박에 빠



불자 세상보기

이 광 현
동국대의정신과 교수

도박중독, 잘 대처하고 있나?

지는 경우도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도박이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는 더 커지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경우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도박에 투자한 돈 때문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또한 우리 사회가 도박을 부추진 면도 없지 않다. 도박이 허용된 나라일수록 도박중독자가 많

다는 연구가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출입 도박장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마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도박장 개설 허가를 원하고 있다. 소탐 대실하기 십상이다.

과천이나 제주도에 가면 멀쩡하게 일해야 할 시간에 택시기사, 회사원, 영업사원 할 것 없이 자기 일 제쳐두고 경마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뿐인가? 경륜 경정 오락경마 바다가야기 성인오락실 인터넷게임 등 공식·비공식적인 도박은 우리사회에서 너무나 성행하

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조문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야 할 매스컴도 도박 분위기를 띄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도박 관련 영상물, 드라마가 넘쳐나고, 심지어는 미화하기까지 한다. 폭력이나 도박 등 좋지 못한 영상물을 보면, 내용이 아무리 권선징악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해도 결국 청소년이나 그런 것을 동경하는 사람에게는 뇌리에 새겨져서, 기회가 되면 그런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 학습이론가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도박중독은 최근 의학의 발달로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많은 치료법이 개발돼 큰 발전이 있었다. 특히 약물치료 부분에서 일부 항우울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쓰이는 일부 약물이 도박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환자나 가족이 스스로 다른 환자들의 도박 중독 치료를 돕는 단도박 친목모임도 있다.

너그러운 어머니와 마음씨 좋은 아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의 빛을 갠어주고 도박을 그만두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가족들의 행동은 마치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자식에 대한 애초로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자비로 경제한파 극복을

어느새 거리에는 구세군의 종소리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진다. 한 해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유래 없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맞은 겨울은 몸보다 마음이 더 춥다. 증시의 폭락과 반등, 각종 사건사고 등 연일 우울한 뉴스만 듣는 심정은 몰아치는 삭풍보다 더 찔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추위보다 이웃의 추위를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시절이다. 해 저문 거리에서 언 몸을 구부리고 잠을 자는 노숙인과 외지할 곳 없이 외롭고 마라한 노년을 보내는 독거노인은 물론 졸지에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취업을 못해 불안해하는 청년들까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추운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삭막한 겨울을 훈훈하게 하는 소식이 있다. 불교계 복지단체들에 따르면 경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과 이웃 돕기 성금 등이 줄지 않고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부문화의 정착과 관련단체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등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기부도 늘어났지만 개인들의 소액 기부가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남의 어려움을 돌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개인의 소액이 모여 그 만큼 확실했다는 것이다. 울겨울 불자들의 자비함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더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주목하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잠재력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불교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유산을 창출해왔고 그 가치를 세계로 전하는 일이 당면 과제다.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템플스테이다.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방황은 그치지 않았다. 물질이 만능이 아니고 정신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그래서 서구의 학자들이 일제강점기 동양의 선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선불교뿐만 아니라 사찰에서의 생활 자체도 고도의 정신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인식되면서 불교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화전통이 웰빙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템플스테이는 정신의 휴식이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은 문화 아이콘이다. 거기에는 마음의 쉼을 통한 인간 근원에 대한 절실한 구도가 담겨 있고 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의 길이 있다. 또 평생명과 더불어 청정한 삶을 누리는 지혜를 배우는 길이기도 하다.

템플스테이를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불교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시도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가치로 승화시키는 단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미나가 보다 많은 개선포럼과 제안, 새로운 아이টে임을 수확하기를 기대한다.

출가하겠느냐

결혼 생활 33년째가 되는 이씨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 나 있다. 비결을 묻자 "우리도 남들 겪을 일 다 겪고 살아왔어. 그런데 의지할 것이 있었거든요.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견디게 해주는 단단한 버팀목이 있었어요"라고 답했다.

이씨는 어려서부터 불자인 어머니를 따라 항상 절에 다니며 컸다고 한다. 신종의 그 절에 한 큰스님이 계셨다. 아기 때부터 보아온 스님은 이씨를 팔처럼 자상하게 가르치고 이끌어주었다. 이씨는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갈 때마다 봉사했고 경전과 참선공부를 열심히 했다. "고등학교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너 출가할 생각은 없느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씨는 깜짝 놀랐다. 절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한 번도 자신이 스님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었던 것이다. "스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있던 열심히 부처님 법에 따라 살 거예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다. 이제 그 절에는 방학 때마다 가게 됐다.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 성실한 사람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스님의 선물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던 날 스님에게 그 사람과 함께 갔다. "스님, 결혼할 사람이예요." 스님은 반가와 하며 청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남의 잘못 내 모습으로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4 인내, 용서하는 자비에서 나온다

래, 참 좋은 인연이구나" 그리고는 "내가 줄 것이 있으니 두 사람 좀 기다리시게" 하더니 다른 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스님은 오지 않았다. 이씨는 좀 걱정이 돼 '무일 주신다고 할 때 사양할 것을, 괜히 어른께 누를 끼쳤나' 싶었다. 염주나 경전을 주시겠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았다. 왜 이러 오래 걸리시는지 걱정이 됐다. 한 시간이 훨씬 지났을 때 방문이 열렸다. "여기 있네, 결혼 선물" 하며 스님이 내놓은 것은 커다란 한지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통 끝씨였다. 종이 위에 참을 인(忍)자가 가득한 것이 아닌가. "인(忍)자만 108번을 썼네. 뜻을 아시겠나." 이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스님은 "보통 인(忍)자를 참는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 그러나 이 글자에는 '용서하다'

라는 뜻이 있어.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비심이 없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 용서하지 않고는 진정한 인내가 되지 않는 법이야. 꼭 명심하게. 하루 108번이라도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게. 그럼 행복하게 잘 살 걸세." 이씨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스님이 직접 써 주신 108번의 용서, 인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스님은 "결혼 축하하네. 이제 출가하는구먼" 하고 미소지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출가하는군. 그래, 출가해 수행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라는 말씀이었다. 그 마음이려면 무엇을 못하랴 싶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교수)

新 토정비결

2009년(己丑年) 천년 약속 평생운세 내 운명, 내 운세는 내가 본다!!

21세기 新개념의 평생운세! 토정식 백광비결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실생활에 맞는 운세풀이로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법과 후천적인 운명의 행운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술하였다.

역술학의 성전... 지금바로 펼쳐보십시오!!

白班(백광) 저음 / 신국판 / 352쪽 / 정가 15,000원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실생활에 맞는 운세풀이로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법과 후천적인 운명의 행운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술하였다.

역술학의 성전... 지금바로 펼쳐보십시오!!

白班(백광) 저음 / 신국판 / 352쪽 / 정가 15,000원

21세기 新개념의...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 한방처방학'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이 한눈에 속속!

徐昇侯 저음 / 4x6배판 / 양장본 / 1권 880원, 2권 680원 / 각 권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육음이 보인다
功宏 저음/4x6배판/양장본/70,000원

이계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저음/1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택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 / 년 / 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과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